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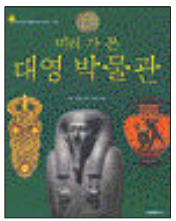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내 친구는 천사병동에 있다=백혈



병,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소아암을 겪은 가족들의 모습을 담담히 그린 작품이다. 백혈병을 앓는 주인공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미리 가 본 대영 박물관=어린이



들을 위한 세계 유명 박물관 여행시리즈. 생생한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세계 최대의 보물창고인 대영박물관을 마치 직접 둘러보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한림출판사·1만5천원>

▲화성에서 온 미루=지구에 불사



착한 생물체 '미루'가 인간을 관찰하기 위해 한 일가족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야기로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일류를 자랑하는 아빠, 무언가 숨쉴만한 볼파구를 찾는 엄마, 늘 전교일등을 놓치지 않지만 여학생들의 옷갈아 입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은 형의 모습 등 현대인들의 모습을 꼬집는다. <창비·8천500원>

▲한국사 탐험대(8주거편)=운동과



마루를 함께 갖춘 우리의 전통 한옥을 고안해낸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독특한 주거문화를 가꾸어 온 조상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웅진주니어·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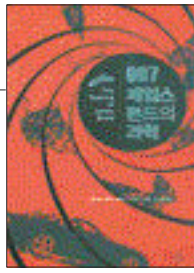
▲행복한 과학 초등학교(제1편)=어



렵고 난해한 과학주제를 초등학교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물리학의 기본인 관성, 중력, 공기의 압력, 전기, 자석 등이 설명돼 있다. <휴먼 어린이·1만원>

007 영화속 과학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007 제임스 본드의 과학' 로이스그레시 외 지음



이번 주 광주시내 극장가에는 스물 한 번째 007 영화 '카지노 로얄'이 개봉했다. 007시리즈는 지난 1962년 '살인면허'를 시작으로 평균 2년에 한 편꼴로 영화화되면서 40년을 넘기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본드 역을 맡은 배우도 손 코너리, 로저 무어, 피어스 브로스난 등으로 변화를 거듭했다. 이번 영화에서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새 제임스 본드로 낙점됐다.

하다고 보기 힘들다. 마니 아들이 007의 새 영화에 기대를 거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영화에 등장하는 무기나 차량 등 첨단기이다.

'007 제임스 본드의 과학'은 007 영화 속의 상상외한 기기들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만능무기 '본드카'는 허구

60년대 GPS 예견...대중에 보편화



최근 개봉된 스물 한 번째 007영화 '카지노 로얄'에 등장하는 본드카. 이번에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살피고 있다. SF소설가인 로이스 그레시와 로버트 와인버그는 영화 속 Q가 발명한 로켓을 발사하는 담배, 회전톱이 달린 손목시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본드의 모험을 파헤친 뒤 과학의 한계 또는 기술의 미래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초기 007의 공식 '본드카'인 에스턴 마틴 DB5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4년 작 '골드핑거'에 서였다. 당시 에스턴 마틴은 주차장 뒤쪽에 두 대의 기관총이 숨겨져 있고, 배기구에서는 연기가 분사되며, 차 후면에는 이동식 금속 방탄막이, 휠 허브에는 열 차의 타이어를 찢는 갈퀴가 장착돼 있다. 이 차는 '골드핑거' 후에도 종종 등장한다.

저자는 차에 대해 "비실용적인 데다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다. 차 후면에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판이 굉장히 얇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판의 무게가 맞처럼 작용해 기어가는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판이 없다면 총알을 막기 힘들어 방탄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허무맹랑한 기술들만 탑재돼 있던 것은 아니었다. 저자는 007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가장 유용한 기기로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꼽았다. 지금은 일반인에게도 GPS가 보편화됐지만 '골드핑거'가 개봉됐던 당시에는 개념조차 모호하던 것이었다. 60년대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밖에 '위기일발'(1963년)에 나오는 카메라 모양 녹음기, '선더볼'(1965년)의 적외선 필름카메라, 압축공기 미사일, 방사능 측정기 손목시계, '두 번 산다'의 독침이 든 담배, '뉴 투 어 킬'(1985)의 도청기를 탐지하는 전기면도기,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살펴본다. <한승·1만3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반론 '반론의 예술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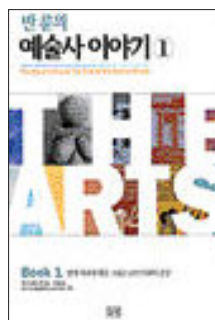
예술이라는 것, 즉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건축, 문학 등등은 우리에게 경이감과 함께 때로는 당혹스럽기, 불편하기도 한 존재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성과 정서 그리고 교양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잘 살아보세'라는 지상과제로부터 헤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덤뎠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명 없는 미술 감상은 버겁고, 클래식 음악을 하나 사려해도 작곡자는 들어보았는데 같은 곡이지만 어떤 교향악단의 것을 골라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결심한다. 고 통스러운 예술보다는 몸에 좋은 운동을 하자라고. 그런데 운동도 기본이 필요하고 몸을 익혀야 하고 예절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처럼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기본 몸을 익히려 노력을 했던가를 고민해 보자. 아니지 않겠나.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가면 즐거운 것처럼 예술을 접하기 전에 그 곳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예술 여행기가 있다면 어떨까. 바로 '반론의 예술사 이야기'(전 3권·돌베·2000)

편안하고 재미있는 '예술의 역사'



가 그런 책이다. 이 책은 회화, 건축, 음악, 조각, 문학 등을 아우르는 교양서이자 전문서이다.

네덜란드 태생으로 AP통신 기자를 거쳐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친 헨드릭 윌렘 반론(1882~1944)의 책은 예술을 대하는 사람들을 주눅 들지 않도록 해준다.

이 책은 일반적인 예술의 역사서와 다르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글을 전개시켜나간다. 이를테면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영광으로 가득 찬 천재가 아니라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풍요로운 삶, 맛있는 식사, 멋진 옷, 세속적인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는 '보통사람'이라는 것이다. 예술도 마찬가지로 신비한 종교예술로 인식되는 비잔틴 예술도 실은 이슬람 제국에 둘러싸였던 비잔틴 제국의 미래에 대한 절망과 공포로부터 비롯됐다는 다소 도발적인 해석을 내 놓는다. 예술과 예술가가 사회·경제적 환경 안에서 자라왔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책은 세계의 예술을 쉽게 설명해 나간다. 단순히 예술계의 거장들인 미켈란젤로, 바그너, 베토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스트라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독일의 상인 하인리히 슐리만은 어떻게 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재발견 했는지를 이야기 하면서 그리스 문명을 설명한다. 마치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주욱 따라 읽다보면 예술의 속내를 알게 된다.

반론은 다양한 자료들을 해박한 역사적 지식으로 종합으로 누비면서 파스한 필장감처럼 짜놓아 독자들에게 예술이란 편안하고 재미있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준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들이 읽는 눈을 쉬이하게 하는 재치가 책 속 곳곳에 숨어있다. 사회와 경제, 정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된 '반론식' 예술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관점이 됐음은 물론, 제법 다방면의 예술분야에 어느 책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기도 하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엄마의 리더십이 자녀의 운명 만든다

'Mom CEO-엄마라는...' 강현구 지음



1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 셀러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의 저자 강현구씨가 이번에는 엄마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Mom CEO-엄마라는 이름의 위대한 경영자'를 펴냈다.

이 책은 단순한 자녀 양육법이 아닌, 엄마 자신의 역량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1부에서는 왜 엄마들이 CEO로 변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시대적 요청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자녀를 담당된 리더로 키워낸 선배 엄마들의 감동 사례도 만날 수 있다.

2부는 CEO가 가져야 할 자기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유능한 기업 경영자가 그렇듯 가족을 중심에 놓고 10년, 20년, 30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경영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과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쌤앤파크스·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인 입양아가 쓴 소녀의 아픈 성장기

아침으로... 쉰네 순 리에스 지음



노르웨이 소설은 우리에게 낯설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는 노르웨이 최고 권위의 '브라게 문학상'(2002년) 수상작이다. 브라게 문학상 수상작이 꾸준히 국내에 소개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뚱맞다 생각했지만 한국인 입양아라고 쓰인 저자 쉰네 순 리에스의 소개글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소설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다. 저자는 가을, 겨울, 봄 등 세 계절을 지나면서 소녀가 겪는 외면·내면적 변화를 짧고 솔직한 문체로 표현했다. 그리고 봄을 맞으면서 소녀는 점차 생의 의지를 찾고 세상과 화해를 하게 된다. 4개월 동안 정신병동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한국 이름이 지선(池善인)인 저자는 책의 한국어판 출간을 홍보하기 위해 내한, 최근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문학동네·9천500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Cell Banking advertisement with a large red heart logo and text: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인다가...'

Advertisement for '명품 필수 전문점 한우삼형제'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text: '삼형제가 직접 기른 한우삼형제...'